

# 주간 기도 정보

2026. 4. 14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기도 자료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목회도 AI 시대”… 설교 준비 활용 2년 새 3배 늘었다

정보 검색부터 사역 기획까지 활용… 편의성 커졌지만 우려 목소리 높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목회 현장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목회와 설교 준비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목회자가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며, 사역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지용근 대표)가 성인 개신교인 1,000명과 담임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목회자의 AI 사용률은 2023년 41%에서 2025년 80%로 크게 늘었다. 특히 설교와 목회·설교 준비에 AI를 활용하는 비율은 17%에서 58%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활용 범위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설교 및 강의 자료 획득’이 81%로 가장 많았고, 성경공부 준비, 교회 행사 기획, 기도문 작성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 빈도가 높아졌다.

목회자들이 AI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이었다. AI 활용에 긍정적인 목회자의 60%는 문헌 탐색 시간 절약, 30%는 설교 준비의 효율성 향상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개인 묵상과 연구 감소’(35%), ‘설교자의 노력 결여’(29%)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설교 예화와 자료 수집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목회자는 93%가 긍정적이었지만, 성도는 66%에 그쳤다. 설교 주제 선정 역시 목회자 68%, 성도 44%로 AI 활용에 대한 인식격차가 뚜렷했다.

그럼에도 AI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설교 준비에 AI를 사용해본 목회자의 63%가 향후 사용을 늘리겠다고 답했고, 경험이 별로 없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63%가 활용 의향을 밝혔다.

목데연은 “AI 사용 확산은 편의성과 영성 사이의 긴장을 동시에 드러낸다”며 “AI 활용에 따른 사역의 효율화가 결국 목양의 본질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로 확보한 시간을 성도 돌봄과 영적 묵상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단순 자료 정리 등 AI에 맡기되, 목회자는 교제와 심방, 기도 등 사역의 ‘본질’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속 영성 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AI가 제공하는 정교한 문장과 방대한 정보가 신학적 사유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애굽기 33:11)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시편 1:3-4)

하나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유행과 시류를 따라 이리저리 모이고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한국교회는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형통케 하소서. 또한 한국교회의 강단을 보호하여 주셔서 목회자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게 붙드소서. 그리고 주님과과의 생생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진리만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성경 한 권의 ‘죄’... 북한, 3대를 벌하다

신앙을 반국가 범죄로 낙인 찍는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3대에까지 처벌이 이어지는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 자체가 ‘반국가 범죄’로 규정되며 조직적 종교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종교 탄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본질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북한 정권이 사실상 자체적인 종교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일성주의는 ‘유일사상 10대 원칙’ 등을 통해 주민의 삶 전반을 통제하며, 외부 종교는 김씨 일가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탄압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는 북한의 ‘성분 제도’에서 시작된다. 북한은 주민을 출신 성분에 따라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는데, 종교인은 최하위인 ‘적대 계층’에 포함된다. 한 번 이 계층으로 분류되면 교육, 취업, 거주지, 배급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받으며, 이러한 신분은 자녀와 손자에게까지 대물림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아시프 마흐무드 부위원장은 “연좌제에 따라 가족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며 “20년간 인권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적 통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외래 문화와 종교 자료 유입을 전면 차단하며, 성경을 포함한 종교 서적의 소지와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한국 영상물이나 음악을 접하는 행위에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어 2021년 제정된 청소년교육보장법은 청소년층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종교 활동과 신념 전파를 범죄로 간주하며, 외부 문화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세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확산되는 K-콘텐츠가 북한 내부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당국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최신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정치범죄로 취급돼 법이나 규칙 없이 사람을 마음대로 체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에서 ‘반국가 범죄자’에 대한 공개 처형을 인정한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역시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하며 ‘특별우려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에게 종교의 자유는 미국이 세워질 때부터 중요한 기반이 된 핵심 이념 중 하나”라며, “북한 주민들도 자신이 가진 종교적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런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VOA).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출애굽기 9:13,16)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범죄가 되어 자신뿐 아니라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는 위협 가운데 놓인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김씨 일가를 향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며 주민들을 탄압하는 공산정권을 꾸짖으사 주를 섬기기 위해 창조된 백성들을 그 억압에서 놓이게 하소서. 오늘도 숨죽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를 불드사, 주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북한과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의 영혼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항우울제 처방 2,400만 건 돌파... 5년 새 40% 급증**  
소아·청소년 처방 2배 이상 늘어 ‘최고치’... 정부, 정신건강 정책 강화



국내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하며 2,4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처방 사례가 2배 이상 폭증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총 2,440만 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785만 건 대비 36.7%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22년 처음으로 2,000만 건을 돌파한 이후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의 증가세가 독보적이었다. 0-9세 아동의 처방 건수는 2020년 4만 4,000건에서 2025년 11만 3,000건으로 156.8% 급증했다. 10대(10-19세) 또한 같은 기간 127.4% 늘어난 128만 5,000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 모두 5년 사이 처방 건수가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10대의 경우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업 부담, 또래 관계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30대(74.7%)와 20대(55.9%)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경쟁과 취업난, 경제적 스트레스가 청년층 우울 증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질환별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포함한 운동과다장애에 대한 항우울제 처방이 433.8% 폭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진단율이 늘어난 점도 처방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장애(80.4%), 수면장애(77.6%), 강박장애(59.3%) 등에 대한 처방도 일제히 늘어났다. 우울증 외에도 다양한 정신건강 질환에 걸쳐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정신건강 문제가 특정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미애 의원은 “항우울제 처방의 단기간 급증은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위기를 알리는 신호”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과 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방문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시편 117:2)**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하나님,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항우울제 처방이 폭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여러 원인으로 삶의 기쁨을 잃고 위기를 맞이한 이 상황을 긍휼히 여기사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허락하신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와 부모세대가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다음세대가 온 열방에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